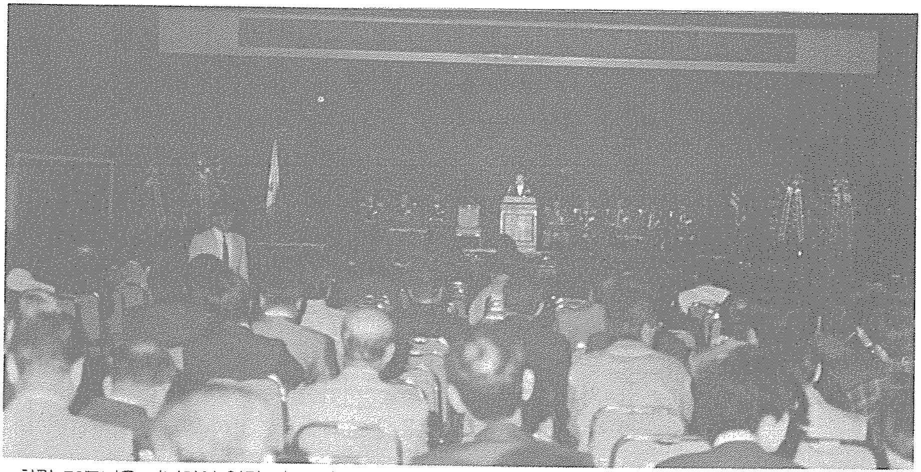
DENTAL NEWS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70주년 기념

第40回 綜合學術大會 盛大히 擧行

대회주제-다음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유산-



·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 40회 학술대회 개회식, 윤흥렬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40회 종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의 규모로 꾸며진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에서 진행되었으며 6천명에 육박하는 치협회원들과 1천여명의 치과기재상들이 참가하였다.

『다음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대회에는 특강 10연제와 7개 주제하의 심포지엄, 27연제 테이블크리닉, 29연제 포스터발표 29연제, 일반연제 17연제, 해외최신지견 16연제 등을 포함하여 모두 1백 28개의 연제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대회 첫날인 1일 개회식에는 윤흥렬치협회장과 최부병학술대회 집행위원장등 치협의 임원들과 안필준 보사부장관, 질렌 FDI사무총장, 지헌택 아태회장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장 2층의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되었으며 최부병 학술대회 집행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훌륭한 치과의료문화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 창립70주년을 맞아 우리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돼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밝히고 『학술대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뜻있고 열매 맺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필준 보사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요즈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져 보건의지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됐다』며 『국민 구강보건에 이바지하는 치과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또 제18회 학술대상 수상자인 이재현학장(단국대 치대)과 제12회 신인학술상 수상자인 기우천교수(전남대 치대)에 대한 시상식과 89~91년도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표한 최명애씨외 2백 4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있었다.

〈관련화보 p.864 참조〉